

# “목적이 옳으면 수단도 정당한가”

선거 영화 ‘킹메이커’ 다음달 개봉  
실존 인물 선거 참모 엄창록 모티브  
변성현 감독, 설경구·이선균 출연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의 변성현 감독과 배우 설경구가 뜨거워진 정치 드라마로 돌아온다.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킹메이커’다.

실존 인물인 선거 참모 엄창록을 모티브로 한 영화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 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다.

변성현 감독은 최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옳은 목적을 위해 옳지 않은 수단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그 질문은 현재에도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1960~1970년대 선거판을 배경으로 신념이 다른 두 남자가 같은 목적을 위해 한배를 타서 벌어지는 여정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운범 역을 맡은 설경구는 “‘불한당’과 ‘킹메이커’ 시나리오를 함께 받았다”며 “김운범 캐릭터가 주는 압박감에 몇 번을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에도 통하는 이야기여서 변 감독의 스타일리시즘으로 풀어내면 단순히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영화가 나올 것 같다”며 “부담이 있었지만 어떤 스타일의 영화가 나올지 궁금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티브가 된 인물을 모사하는 건 배제했다”는 설경구는 “연설하는 장면이 너무 괴로웠다”고 전했다.

그는 “여건상 군중 없이 블루 스크린 앞에서 혼자 연기하는데 선동적인 면도 필요했고, 좀 더 호소력 있고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톤을 잡아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말했다.



영화 ‘킹메이커’에 출연하는 배우 설경구(왼쪽)와 이선균이 감독 변성현(가운데)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감독은 “가만히 있어도 커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 것들을 주문했다”며 “진중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해 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창대 역의 이선균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중 대본을 받았는데, 드라마에서 극장에서 영화 보는 장면을 촬영할 때 나온 게 ‘박하사탕’이었다”며 “우주의 끝임을 느꼈다”며 캐스팅 과정의 에피소드를 전했다.

촬영 일정이 바빠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선균의 답변을 노심초사 기다리던 변 감독과 우연히 미용실에서 만나 ‘운명’을 완성했다고.

모티브가 된 엄창록은 실존 인물이지만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이선균은 “이 사람이 왜 뒤에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서 자

신의 이상과 꿈을 김운범이라는 인물에 투영해 발현시키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고민하며 연기했다”고 했다.

그는 “영화 속 김운범의 포스터를 방문 앞에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김운범의 사진을 보면서 ‘서창대가 되리라’ 다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1960~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면서도 비슷한 시대를 다룬 영화에서 많이 봐 온 것들 대신 영화적 상상력으로 창조해 낸 새로운 비주연들을 선보인다.

변 감독은 “아직 내공이 부족해 몇 부리는 걸 좋아하는데 ‘불한당’에서는 티가 나는 맛을 부렸다면 ‘킹메이커’는 티 내지 않고 멋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클래식하지만 울드하지 않은 정치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엄마’ 가희·박정아·선예 아이돌 재도전 나선다



사진 왼쪽부터 가희, 박정아, 선예.

엄마가 된 2000년대 걸그룹 멤버 원더걸스의 선예, 애프터스쿨의 가희, 주얼리의 박정아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tvN은 출산과 육아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났던 스타들이 아이돌에 재도전하는 새 예능 ‘엄마는 아이돌’을 다음 달 10일 첫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연을 확정된 선예, 가희, 박정아는 트레이닝을 거쳐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 다시 한번 대중 앞에 나설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 중인 선예와 가희는 이번 도전을 위해 귀국을 결정했고, 현재 밤낮으로 컴백 무대를 위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세 사람과 함께 아이돌에 재도전할 다른 멤버들의 정체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스타들의 컴백을 돕기 위한 ‘컴백 소환단’으로는 홍진경, 도경안, 이찬원, 우즈가 활약한다. 네 사람은 프로듀서 섭외, 매니저 수행 등을 지원한다.

연출을 맡은 민철기 PD는 “그 시절 추억 소환은 물론, 여전히 현역 시절 같은 기량을 뽐내는 이들이 그려낼 레전드 무대와 함께 모두 따뜻한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KBS 다큐 ‘자연의 철학자들’

다음달 3일 첫 방송



KBS 1TV는 다큐멘터리 ‘자연의 철학자들(사진)’을 다음 달 3일 처음 방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7부작으로 구성된 ‘자연의 철학자들’은 도시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을 배경으로 담아냈다.

처음 방송되는 1편 ‘너는 꽃이다-꽃밭 4대가족이 전하는 꽃의 철학’에는 충남 아산에서 야생화 꽃밭을 일군 60대 부부와 그들의 노모, 자녀, 손자 등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다.

이 외에도 강원도 영월군에서 홀로 수행하며 삶의 답을 찾는 지산스님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단순한 곳에 길이 있다-지산스님의 산중 오두막 철학’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박은빈 왕좌에 앉힌 ‘연모’ 10% 돌파...사극 로맨스 ‘훈풍’

‘웃소매...’ ‘어사와...’ 도 인기

박은빈과 로운의 이슬이슬한 궁중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연모’가 시청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연모’ 13회 시청률은 10%로 집계됐다.

‘연모’는 쌍둥이로 태어나 여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가 오라비 세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총 20부작으로 제작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세자 이휘(박은빈 분)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강원 사서 정지운(로운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휘는 죽은 지금껏 사람들을 속여가며 살아온 시간을 덤덤하게 털어냈고, 지운은 어린 몸으로 휘가 홀로 견뎌낸 시간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렇게 ‘휘은 커풀’은 평생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살지라도 평범한 삶을 함께 살자고 약조하며 처음으로 이성으



‘연모’

로서 서로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휘를 왕좌에 앉히려는 외조부 한계(윤제문)의 계략으로 혜중이 죽고, 휘는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왕좌에 오른다. 휘는 지운에게 이별을 고하며 두 사람의 사랑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연모’와 함께 왕과 궁녀의 애절한 로맨스를 그린 ‘웃소매 붉은 굴동’, ‘암행어사와 조선 시대 이혼녀인 기별부인의 코믹 커플 수사극을 그린 ‘어사와 조이’ 등 다른 사극 로맨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2일 처음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굴동’의 시청률은 1·2회 5%대에서 3·4회 7%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드라마는 주체적인 삶을 꿈꾸는 궁녀(이세영)와 성군이 되고자 하는 왕세손(이준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8일 처음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어사와 조이’도 4~5% 시청률(비지상과 유료가구)로 사랑받고 있다. 알뜰결에 암행어사가 된 라이언(속택연)과 기별부인 김혜운(김조이)의 통통 튀는 매력에 극을 발랄하게 이끈다. /연합뉴스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 부 권 역 010-2450-1954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함 평 대 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 부 권 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